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1. 21

서정훈 연구위원

***jh@hanafn.com

02.729.019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14-11/18)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 11.14일 1,325.9(+7.5): 지난주 급락 되돌림 속 상승. 개장 후 결제 유입에 1320원 상향 시도 후, 중시 외인 순매수 유입 속 1308.5원까지 저점을 낮춤. 이후 위안화 약세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시가 하락 전환 후 낙폭 확대하자 1332원까지 고점 높인 후 상승폭 일부 반납.
- 11.15일 1,317.6(-8.3): 중국발 위험선호 속 하락. 외인 중시 순매도 속 오전경 1320원대 초중반에서 지지력 유지하며 등락 나타냄. 우호적인 미-중 회담과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에 오후 들어 아시아중시 강세 보이고 역의 달러 하락하자 1316.1원까지 저점 낮춤.
- 11.16일 1,325.0(+7.4):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상승. 간밤 러시아의 폴란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장 초반 1320원 상단으로 빠르게 레벨 높여 1320원대 초중반 등락 이어감. 이후 외인 순매도폭 확대 속 1332.1원까지 고점 높인 후 네고 유입 속 상승폭 일부 반납함.
- 11.17일 1,339.1(+14.1): 배당금 역송금 및 위안화 약세에 상승. 장 초반 위안화 강세 속 1330.6원까지 저점 낮췄으나 오전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에 연동해 꾸준히 레벨 높임. 중시 낙폭 확대 및 위안화 약세 속 정오경 1345원까지 고점 높인 후 상승폭 일부 반납.
- 11.18일 1,340.3(+1.2):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속 소폭 상승. 간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최종금리 5-7% 제시하자 장초반 강달러에 1346.3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중시 상승 속 1330원대 후반까지 레벨 낮췄으나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에 하단 제한되고, 정부 수급 개선책 발표 속 상단 제한되며 1340원 중심 등락 이어감.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지난주 100원 급락 후 되돌림 속 결제 유입 및 중시 하락 전환에 상승. 이후 중국 부동산 안정책 발표 및 우호적 미-중 회담 소식에 위안화 강세 보이자 원화 동반 강세 보이며 달러-원은 상승분을 되돌림.
- 주 중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정학적 우려에 달러-원은 상승. 러시아 미사일 일이 폴란드 국경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확전 우려 속 안전자산 수요 확대되고, 위험회피 속 중시 외인 순매도 확대되자 환율이 상승.
- 주 후반,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송금 수요와 위안화 약세 속 달러-원은 추가 상승.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최종금리 5-7% 제시에 따른 연준 긴축 강화 전망 속 강달러 또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11월 초 급락 이후 새로운 균형 레벨 찾기 속 높은 변동성 나타내는 가운데, 미달러 지지력과 금통위 결과에 등락 나타낼 전망. 연준 관계자들 발언과 금주 발표될 11월 FOMC 의사록 확인을 통한 최종 금리 탐색에 미달러는 금주 지지력 나타낼 것으로 보임. 최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최종 금리 상향 기대를 높이는 발언에 대해선 달러 상승 압력 나타낼 듯.
- 금주 금통위 25bp 인상 전망되는 가운데, 11월 환율 급락 이후 한은 총재의 매파적 톤이 완화될지와 한시 안정책 추가 발표 여부가 환율에 변동성 제공할 듯. 최근 코로나 확산 속 중국 당국 대응에 따른 위안화 변동 또한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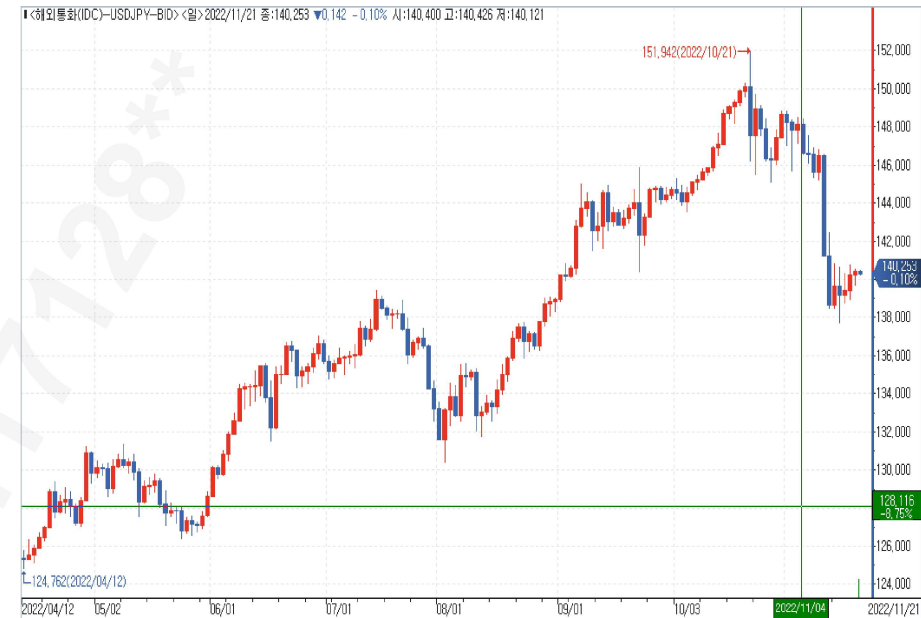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6.00	1,346.30	1,308.50	1,340.30	+21.90

예상거래범위

1,320원 ~ 1,360원



엔·유로화 동향 (11/14~11/18)



유로화 동향

- 주초, 10월 미 CPI 시장 예상 이하 감소 이후 연준내 일부 속도조절론이 부상했지만, 또 다른 인사의 시장이 다소 앞서갔다는 평가에 달러 강세 속 전주의 강세가 되돌림되는 국면 속에 출발. 이어 미 CPI와 PPI도 하락 추세 보이면서 재차 위험선호 영향에 따른 달러 약세로 유로 가치는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 피격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을 반영하던 유로화는 오폭 사고로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완화로 달러 약세 반영되며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연준 인사의 금리 상단 5~7% 언급에 따른 매파적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급반등한 영향으로 약세 재전환 후, 주 후반, 연준내 초 매파 성향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 재언급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 탄력 받으며 하락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57	1.0481	1.0268	1.0324	-0.003

엔화 동향

- 주초, 미 CPI 감소 속 연준내 다소 엇갈린 의견에도 월러 이사의 매파적 언급 등으로 약세 출발. 이어 미 생산자물가도 CPI에 이어 감소 국면을 보임에 따라 엔화는 달러 약세 반영하며 강세 전환한 가운데 폴란드의 미사일 피격 소식 등도 엔화 매수에 영향을 미친 양상
- 중반 들어, 달러 방향성 혼조 속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연준 위원의 인플레이션 경계 속 금리 상단 언급 등에 따른 매파적 영향으로 달러화가 급반등 함에 따라 엔화 약세 지속 후, 주 후반에도 세인트루이스 및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들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초매파적 언급 등에 의한 달러 강세 반영 등으로 상승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8.7	140.7	137.7	140.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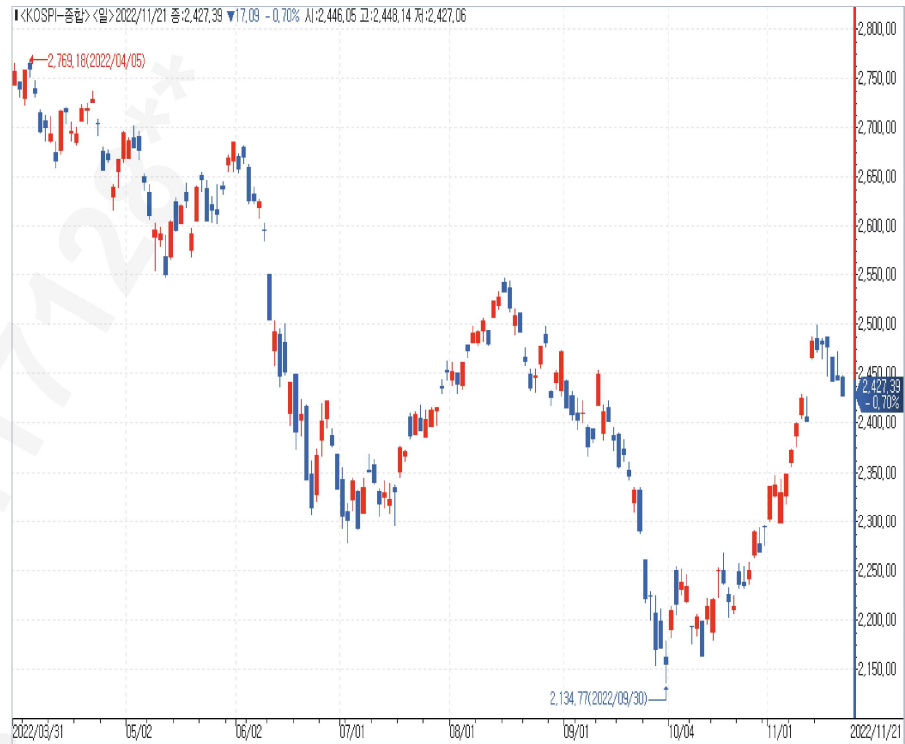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14~11/18)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전주의 CPI 감소를 반영하며 하락 추세를 나타냈던 국고채금리는 특이 이슈 부재 속에 소폭 되돌림 속 상승 출발. 이어 G20 성명 초안의 통화긴축 조절 내용과 RBA 의사록에서의 베이비시텟 당위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전일 폴란드 미사일 피격 소식에 하락세 이어지던 국고채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루 만에 불식되는 영향 반영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소폭 장기물 중심에 하락세를 나타내던 국고채 금리는 마지막 거래일에 미 10월 CPI 감소에도 연준인사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중한 매파적 언급 시사 등으로 상승 흐름 전환 후 소폭 되돌림 양상으로 되돌림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10월 CPI 감소세 영향에 따른 위험선호 반영 속에 상승 출발 후,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 전환. 이어 최근 급등에 대한 뉴욕증시의 되돌림 영향 속에 단기 차익 몰량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흐름
- 중반 들어, 동유럽 폴란드 미사일 피격 소식 등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소매판매 호조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가능성 속에 향후 소비침체 우려 등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반영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 CPI 감소에도 연준 인사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정적 의견 개진 영향 등으로 강보합권으로 마감